중국 "미국과 핵군축 협상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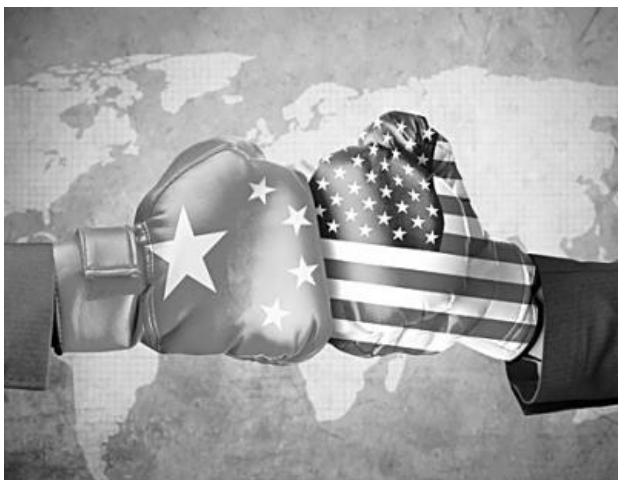
중국은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축하고 미국이 중국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뉴시스' 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 바 3개국 군축 협상을 반대한다는 것이 중국의 분명한 입장이며 미국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다." 며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성가시게하며 심지어 우리 입장을 왜곡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3자 군축 협상이 진실하고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 정치적 속임수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고 주장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우리는 미국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를 연장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청에 가능한 빨리 응답하고 추가적으로 핵무기 재고를 대폭 줄이길 촉구한다. 그러면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이 다자간 핵군축 협상에 참여할 여건이 조성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 2월 만료를 앞둔 러시아와의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중국의 참여를 거듭 요구해 왔다. 중국의 핵전력이 강해진 만큼 미국과 러시아만 핵군축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외교부의 푸충 군축사(국) 사장은 8일 중국은 미국에



▲ 중국이 미국과의 핵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진=shutterstock

비해 훨씬 적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중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줄이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5,800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으로 이는 중국의 20배에 달한다.

유엔 "올해 중남미 빈곤층 4천500만 명 늘어날 것"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중남미에서 4천5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유엔은 전날 펴낸 '중남미·카리브해 코로나19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줄고 실업률이 늘면서 올해 중남미 빈곤율은 37.2%로 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남미 빈곤층 인구가 지난해보다 4천500만 명이 늘어나 2억3천만 명에 달하는 수치로 중남미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빈곤층인 셈이다.

극빈층 비율 역시 11.0%에서 15.5%로 늘면서 극빈층 인구도 2천8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은 지난 4월 중남미 빈곤율이 34.7%로 높아지고, 3천만 명가량이 새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것이다. 유엔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중남미 경제가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올해 중남미 국내총생산(GDP)이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남

▲ 중남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이다. 사진=pxfuel.com

미가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 며 "이미 불평등이 심하고 비공식 노동 비율이 높으며 의료서비스가 해체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고 말했다.

그는 중남미 각국 정부를 향해 "빈곤과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더 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크롱, 서안 합병 계획 철회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합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제궁은 10일 두 정상 간의 통화 사실을 밝히고 마크롱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런 행동은 국제법 위반" 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 평화의 기초가 될 2국가 해법(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국으로 공존하는 구상)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우파 지도자인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들과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겠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와 중도성향 '청백당' 대표인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의 연립정부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스라엘 의회와 내각은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들과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서안에 정착촌을 확대해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인 290만명이 살고 유대인 정착촌에는 이스라엘인 약 60만명이 거주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1개국 주이스라엘 대사들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 정부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려는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 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